

인 증 신 청 서

탐방 프로그램 해설가

프로그램명		일 천 소도(蘇塗)를 깨우는 징소리 - 삼성궁 문화해설	
목 표	지리산 자락에 펼쳐져 있는 광활한 소도의 의미는 어머니의 산 지리산에서 시작된 모든 생명의 시간을 알려준다.		
운 영 장 소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원구역내 <input type="checkbox"/> 찾아가는(공원인근 또는 외부)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유 형	<input type="checkbox"/> 해설자안내 <input type="checkbox"/> 스스로 안내 <input type="checkbox"/> 체험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복합(해설자 안내 + 체험)		
범 주	<input type="checkbox"/> 자연해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역사문화 <input type="checkbox"/> 해안생태 <input type="checkbox"/> 갯벌사구 <input type="checkbox"/> 거점해설 <input type="checkbox"/> 자연체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역사문화체험 <input type="checkbox"/> 자연경관 <input type="checkbox"/> 역사문화경관 <input type="checkbox"/> 해안경관 <input type="checkbox"/> 야간 <input type="checkbox"/> 슬라이드 <input type="checkbox"/> 탐방안내소 <input type="checkbox"/> 혼합()		
운 영 대 상	<input type="checkbox"/> 초등학생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input type="checkbox"/> 대학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성인 <input type="checkbox"/> 장년층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약자.소수자 <input type="checkbox"/> 가족단위 <input type="checkbox"/> 구분 없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		
운 영 시 기	<input type="checkbox"/> 봄 <input type="checkbox"/> 여름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가을 <input type="checkbox"/> 겨울 <input type="checkbox"/> 구분없음		
운 영 인 원	10~15명 이내	소요시간(분)	60분(실내 분/실외60분)
활 동 장 소	지리산 청학동 자락의 삼성궁		
특 성	고조선 시대의 소도를 복원한 삼성궁은 역사적 의미가 깊으며 특히 지리산이 시간과 생명의 시작이라는 소중함을 깨우기에는 적합한 장소로서 어머니의 산, 생명의 산을 알리기에 적지적소이다.		
준 비 물	해설주제와 관련된 각종 부교재(매회 달라짐)		
제 출 자 료	1. 인증신청서(관련서식-1) 2. 프로그램 진행개요(관련서식-2) 3. 프로그램 시나리오(관련서식-3) 4. 해설가용 참고자료(관련서식-4)		
국립공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탐방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해설가 인증을 위한 신청서를 위와와 같이 제출합니다.			
신 청 일 자		신 청 인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 (인)

프로그램 진행개요

프로그램명	일 천 소도(蘇塗)를 깨우는 징소리		
목표	지리산 자락에 펼쳐져 있는 광활한 소도의 의미는 어머니의 산 지리산에서 시작된 모든 생명의 시간을 알려준다.		
해설주제	숲과 인간은 부모와 자식처럼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게 한다		
해설재료	과거를 바라보는 열린 안목, 사계절 사진 자료, 자연물 사진자료	소요시간	60분




프로그램 진행순서

해설단계	해설단계	주요내용	준비물	소요시간 (60')
동기유발	만남	어서오세요. 여기는 지리산 청학동 삼성궁입니다.		5
해설주제	삼성궁 관람	삼성궁을 알아보을까요?		5
	오솔길을 따라	지리산의 아름다운 자연	북조리	20
	소도의 의미	일 천 소도(蘇塗)를 깨우는 징을 울려라	시대 사진자료	5
	삼성궁 둘러보기	수련 마당, 전시관, 건국전, 한반도 모양 우물, 태극모양 우물, 1000개가 넘는 솟대		5
	마고 성 가는 길	붉은 악마를 기억 하시나요? 삼성궁에는 치우천황이 있습니다.	사진자료, 탁본재료	10
주제심화	지리산은 어머니의 산	자연의 품에서 인류의 시간과 문화가 잉태되다		5
마무리	마무리	자연의 엔돌핀을 과거의 타임머신에 가득 담고 현재의 시간으로~		5

1/19	신청인 :	(서명)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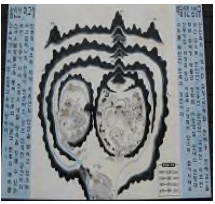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일 천 소도(蘇塗)를 깨우는 징소리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만남	어서오세요. 여기는 지리산 청학동 삼성궁입니다.
  	<p>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p> <p>풍요의 마을, 향기의 마을 청학동, 저 멀리서 들리는 학동들의 글 읽는 소리가 지리산 자락에 찾아 드신 여러분을 청학에 실어 일 천 소도를 깨우러 가자고 재촉하는 것 같습니다.</p> <p>조용히 눈을 감고 귀를 열고 마음을 펼쳐서 하늘을 바라보세요.</p> <p>어디선가 하얀 수염 휘날리고 도포자락 펄럭이는 백발신선이 등장 할 것 같지 않습니까?</p> <p>오늘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시간여행을 하기 위해 저와 함께 삼성궁을 탐방 할 것입니다.</p> <p>저는 여러분을 안내 할 지리산 국립공원 자연환경 안내원 노영선입니다.</p> <p>여러분 잠시 저를 5초간 유심히 봐 주세요.</p> <p>지리산 자락의 맑은 공기를 먹고 살아서 그런지 3초 이상 볼수록 아름답지 않습니까?</p> <p>저와 함께 삼성궁 탐방을 하신 분들은 모두 아름다워 지셨습니다.</p> <p>그건 꿈이 21일 동안 마늘을 먹고 저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던 이야기와 같다고 할 수 있지요...(분위기 전환)</p> <p>지금부터 탐방 할 삼성궁은 왕복 1.2Km 구간으로 대략 60분 정도 소요됩니다. 입구에서 시작하여 오솔길을 따라 200m 올라가는 탐방로 끝에는 고조선 시대의 부활을 꿈꾸고 복원 된 소도가 너르게 펼쳐져 있는데요. 탐방에 앞서 삼성궁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안내판 앞으로 모여 주세요.</p>
삼성궁 돌담길	
2/19	신청인 : (서명)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일 천 소도(蘇塗)를 깨우는 징소리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안내판	삼성궁을 알아보니까요?
  <p>삼성궁 안내판, 가로등 솯대</p>	<p>삼성궁은 우리 민족의 시조인 한배임 (한인), 한배웅 (한웅), 한배검(단군) 및 역대 나라를 세운 태조, 각 성씨의 시조, 현인과 무장을 모신 궁으로 우리 선조들이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내며 배달민족의 사상을 이어받아 고조선 천지화랑들이 신선도를 수행하던 민족고유의 수도 도량이었던 소도를 복원한 곳입니다.</p> <p>‘소도’라는 뜻은 우리 선조들이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성지로 소도에서 신단을 설치하고, 단 앞에 방울과 북을 단 큰 나무를 세워 제사를 올렸는데, 죄인이 이 곳 소도 안으로 도망오더라도 제사장의 허락 없이는 죄인을 함부로 잡아나가지 못했던 신성한 지역이었습니다.</p> <p>여러분이 걸어오시는 길에는 하늘로 쌓아 올린 돌탑과 높이 솯아 오른 솯대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곳의 상징물이 솯대라고 말하듯이 이것은 나무모양을 본뜬 가로등 솯대랍니다.</p> <p>여러분 제가 만지고 있는 솯대를 자세히 보세요. 어떤 모양인가요? (대답유도)</p> <p>솯대 위의 있는 것은 새랍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까마귀·기러기·갈매기·따오기·까치 등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솯대는 마을공동체 신앙의 하나로 음력 정월 대보름에 동제 (洞祭)를 올릴 때 마을의 안녕과 수호, 풍농을 위하여 마을 입구에 세웠다고 하며 홀로 세우기도 하는데 돌, 장승·선돌·탑·신목 등과 함께 세우기도 했다고 합니다.</p> <p>왜 옛날 사람들은 솯대를 세웠을까요?</p> <p>솯대의 기원은 청동기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솯대신앙은 물을 상징하는 물새들을 장대 위에 세움으로써 마을의 안녕과 풍농을 보장하는 마을신의 하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에서도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잘 사는 철새를 계절이 바뀔 때 마다 하늘과 땅을 오가며 신과의 소통을 열어주고 다산의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신격화 하였답니다.</p> <p>그 당시 사람들이 철새를 신성시 바라봤던 마음이 참 순수하죠?</p> <p>자 그럼 작은 지리산을 그려 놓은 듯한 아름다운 경관을 살피며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일 천 소도(蘇塗)를 깨우는 징소리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조릿대의 역할	조릿대가 복을 긁어모아 준대요.
 <p>조릿대</p>	<p>산길을 걷다 보면 이렇게 우리 손에 잡히는 대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 대는 조릿대라고 부르는데 조리는 쌀을 이는 도구로 그 해의 복을 긁어모은다는 뜻에서 복조리라 부르는데요</p> <p>어디보자~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한 줄기 끝에 잎이 두장 올라온 새 줄기로 조릿대를 만든답니다.</p> <p>(조릿대와 복조리를 만드는 과정의 사진과 실제 복조리를 보여 준다)</p>
 <p>복조리</p>	<p>우리 조상들은 설날 그믐날. 밭을 가늘게 짠 복조리를 이웃집 마당에 던져두고 세배 겸 조리 값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조리 값을 깎거나 물리면 복을 깎아 버리고, 차 버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리 값은 깎지도, 무를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때가 아이들에게는 용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였겠죠?</p> <p>사람들은 설날 새벽 복조리를 기둥에 걸어놓고 무사안녕을 빌었으며 복조리는 정월 초부터 정월 보름까지 사고팔았다고 합니다.</p>
 <p>복 갈퀴</p>	<p>복조리는 쌀을 일듯 복을 일어주고 재앙을 걸러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고팔았는데요. 「해동죽지」에는 「예로부터 습속에 설날 그믐날의 해가 저물면 복조리 파는 소리가 성안에 가득하다. 집집마다 사들여서 붉은 실로 매어 벽에 걸어둔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농경문화가 시작되면서 자연스럽게 복조리가 나왔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p> <p>또한 남자들은 복 갈퀴를 사고팔았는데요. 새해 들어 처음 사는 갈퀴가 바로 복 갈퀴라고 합니다.</p> <p>해동죽지 조선말 문신이자 서예가 최영년(1856-1935)이 지은 책으로 저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과 민간에 전승되는 놀이, 세시풍속 등을 간단한 서문과 함께 악부체(樂府體) 한시로 남겼다. 많은 전통이 사라져가는 지금에 와서 이 책은 민속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이다.</p>

4/19	신청인 : (서명)
------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일 천 소도(蘇塗)를 깨우는 징소리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조릿대의 역할	복조리 만드는 과정
 <p>조리 만드는 모습</p>	<p>지금부터 30여 년 전만 해도 산골 사람들의 주 소득원이 숲을 의지하고 숲에서 나온 임산물로 생계를 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복조리도 있는데요.</p> <p>조리 만들기는 백로(白露)때부터 산죽 채취로 일을 시작하여 이듬해 정월대보름날 수금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끝내야 하는데 설날과 정월대보름 두 날은 한해 일이 마무리되기에 설에는 제사도 모시지 못하고 이 일을 했다고 한다. 그렇게 번 돈으로 자식을 가르쳐 도시로 보내고 혼사를 시켰다.</p> <p>산죽을 베는 것도 아무 때나 베어오는 것이 아니고, 처서가 지나고 추석 무렵에 베어 온 산죽이 가장 품질이 좋은 조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p> <p>■ 조리를 만드는 과정은</p> <p>지난 가을에 베어온 1년생 산죽을 15일 정도를 건조한 후 다듬고 쪼개어 건조시키고 물에 불려 놓았다가 조리를 췌는데 산죽의 원목은 불펜보다 약간 가는 정도 굵기로 산죽 12개를 4조각으로 쪼개어 48개의 뗏살을 만들어 조리를 만든다고 합니다.</p> <p>시누대로 만들기도 하지만 시누대는 굵고 때깔이 좋지 않다고 하고 복조리용으로는 산죽이 제일 품질이 좋다고 합니다. 조리를 만드는 날은 3~4시간 정도 뗏살을 물에 불리고 건조시켜야 복조리 만들기가 수월하다고 하니 산골 사람들의 의식주의 모든 기반이 이 숲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p>

5/19	신청인 :	(서명)
------	-------	------

해설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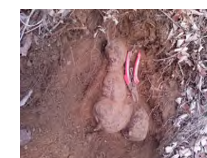
프로그램명	일 천 소도(蘇塗)를 깨우는 징소리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주변경관	<i>Sasa borealis</i> (Hack.) Makino <i>borealis sasa</i>
 조릿대	<p>■ 벼목 벼과</p> <p>■ 다른 이름 : 산죽</p> <p>겉손과 지조를 상징하는 대나무는 잎이 고개를 숙이듯 나고 줄기의 속이 비어서, 겉손과 덕을 갖춘 선비에 빗 대어 부릅니다. 의롭지 못한 일은 절대 하지 않는 지조 있는 사람을 “대쪽같은 사람”이라 부르며 우리나라 전국에서 저절로 자라는 늘 푸른 작은 키 나무입니다.</p> <p>어긋나며 나는 잎은 긴 타원형이며 예로부터 줄기를 엮어서 살 씻을 때 돌을 걸러내는 조리를 만들었다고 하여 ‘조릿대’라고 불렀습니다.</p> <p>잎은 약으로 쓰며, 암 치료제 등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열매는 옛날 흉년이 들었을 때 배고픔을 달래려 먹었습니다.</p> <p>■ 조릿대는 대나무의 한 종류이지만 풀이 아닌 나무입니다.</p> <p>땅 속의 뿌리줄기는 옆으로 100m이상 뻗뻗하게 뻗으면서 땅위로 새싹을 내 보내어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조릿대가 자라는 곳은 땅 속의 양분이 넉넉하지 않고 무성한 잎으로 햇볕을 가리므로 다른 식물이 자라기 어렵지만, 숲 속의 동물들에게는 편안한 보금자리가 되어 주기도 한답니다. 꽃은 보리이삭 모양이며 자주색이고 꽃차례 축은 털과 흰 가루로 덮여 있으며 5~7년 마다 4~5월에 피는데, 꽃이 지면 땅 위의 줄기가 죽습니다.</p>

6/19	신청인 :	(서명)
------	-------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일 천 소도(蘇塗)를 깨우는 징소리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소나무의 역할	버릴 것 없는 소나무
 소나무	자 앞에는 쪽쪽 잘 뺐은 소나무들이 멋지게 서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 1위가 바로 소나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소나무를 좋아하시나요? 우리 민족이 소나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보을까요?
 솔방울	‘소나무 아래서 나서 소나무 관에 묻혀 죽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민족이 사랑하는 소나무의 쓰임새는 무궁무진 합니다. 소나무 전체가 모두 약이 된다고 해도 될 정도로 칭찬 거리가 많은데요.
 솔잎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솔방울 끓여서 차로 마시면 위암 방지와 유행감기에 효능이 있다. ■ 솔잎 뇌졸중, 고혈압, 암에 좋고 노화방지 효과도 있다고 한다.
 나무껍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무껍질 탈모방지, 해독, 불면증에 효능이 있고 심장병, 기침, 위장병에 좋다
 송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이 소나무 마디인 솔 마디로 뼈의 마디처럼 불록하게 생겼는데 관절염에 좋다.
 복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령 소나무 뿌리의 외생균이 공생하며 생겨낸 균덩어리. 한약재로 유명하고 현대의학에서도 항암제, 면역체 형성의 효능을 연구하고 있다. 그 밖에 소나무의 꽃가루로 만든 송화다식, 속껍질을 벗겨 만든 송기떡, 같은 먹거리와 송진, 송묵연, 솔잎베개, 솔향 등이 두루 쓰이고 있죠? ■ 소나무 숲의 특별한 친구. 누구일까요? 바로 송이 버섯입니다. 향기와 맛이 좋은 송이버섯은 소나무 숲에만 나는 버섯이라는 이름도 송이. 송이버섯은 소나무뿌리에 송우균이 침입하면 균근이라는 특별한 뿌리 구조가 생기며 자랍니다. 송이는 소나무가 광합성을 하여 만들어낸 탄수화물을 먹고사는데 균근이 송이버섯과 소나무가 서로 물질들을 교환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로 돕고 산답니다.
7/19	신청인 : (서명)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일 천 소도(蘇塗)를 깨우는 징소리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소나무의 역할	버릴 것 없는 소나무
 <p>정이품송</p>	<p>■ 소나무목재가 최고</p> <p>궁궐을 지을 때는 곧게 자란 소나무로만 기둥을 세웠으며, 절집을 짓는 데도 기둥, 보, 추녀, 도리 모두 소나무로 만들었다.</p> <p>배를 만들거나 조각품은 물론 주걱, 도마, 책상 같은 살림살이까지 소나무로 만들 수 없는 것이 없다., 소나무를 태워 만든 목탄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나오는 목초액은 땅에 유익한 농약이 된다.</p>
 <p>석송령</p>	<p>■ 이름난 소나무</p> <p>벼슬있는 소나무 정이품송</p> <p>충북 보은군 속리산 입구에 있는 소나무로 높은 벼슬을 얻은 나무이다, 조선시대 세조 임금이 가마를 타고 한 소나무 밑을 지나던 중 가지가 걸릴 것 같아 '연 걸린다'라고 말 하자 나무가 스스로 가지를 들어올려 임금의 행차가 무사히 지나가도록 했다.</p> <p>이를 기특하게 여긴 임금이 정이품 벼슬을 내려 그때부터 '정이품송'이란 별명을 얻었다. '연걸이나무'라고도 한다. 천연기념물 103호로 나이는 약 600살 이고 높이는 15M이상 된다. 십여년 전부터 솔잎혹파리 때문에 고생을 심하게 했으며 폭풍에 큰 가지도 하나 잃어 버렸다.</p> <p>세금내는 소나무 석송령</p> <p>경북 예산군 감천면 마을회관 앞에 아름다운 소나무가 있다.' 약 600년 전 홍수에 떠내려오던 나뭇가지를 마을사람이 건져내 심은 나무라고 한다, 1927년 8월 무렵 이 소나무를 자식처럼 잘 가꾸고 의지하며 살던 이수목이라는 노인이 '석평마을의 엄험있는 소나무'란 뜻의 '석송령'이란 이름을 지어주고 자신의 토지 5,259 를 상속하고 토지대장에 등기해 주었다, 그후부터 지금까지 석송령은 세금을 내는 소나무가 되었다. 석송령 소유의 땅에서 마을 청년들이 함께 농사를 짓고 그 수익금으로 세금을 낸다. 뿐만아니라 장학금도 주고, 마을 회관도 지어주었다고 한다.</p>

8/19	신청인 : (서명)
------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일 천 소도(蘇塗)를 깨우는 징소리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주변경관	<i>Pinus densiflora</i> S. et. Z. japanese red pine (학명 영명)



소나무

■ 다른이름 : 솔, 송, 적송, 여송, 육송

한국이 원산지인 '소나무'는 순수한 우리말인 '솔'에서 나온 이름인데 솔은 '으뜸'을 뜻하는 '수리'가 변해서 된 말이며 "솔" 또는 "솔나무"라 부르던 것은 송진이 많이 나오는 나무란 뜻이기도 합니다. "소나무로 집을 짓고 세간을 만들며 땀감으로 쓰면서 살다가, 죽으면 소나무로 만든 관에 들어가 소나무가 자라는 산에 묻힌다"는 옛말이 있을 만큼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며 늘 푸른 나뭇잎은 변하지 않는 선비의 지조와 충절을 나타낸다고 하여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선비정신을 대변하는 나무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소나무는 소나무과의 상록침엽의 큰키나무이며 열매인 솔방울이 5월에 열려 다음해 9월에 완전히 익습니다. 잎은 바늘잎으로 2개씩 모여난다. 밑 부분에 비늘이 있고 2년 뒤에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푸른잎을 간직한 상록수라 불립니다.


소나무는 목재로 품질이 좋아서 예로부터 궁궐과 유명한 절을 지을 때 많이 썼다. 잎으로는 약, 차, 술, 음료수를 만들며 잎을 베갯속에 넣어 베면 머리가 맑아진다고 합니다. 꽃가루에 꿀을 섞고 반죽하여 예쁜 무늬를 새긴 틀에 찍어내면 전통과자인 "다식"이 됩니다. 추석 때 먹는 송편은 '솔잎을 깔아 찌는 떡'을 말하는데, 솔잎의 성분이 떡을 상하지 않게 해서 그렇게 찌서 먹었고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에는 껍질이나 새순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하였답니다.

.소나무는 적송, 육송, 강송, 춘양목이라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 '나무 줄기가 붉다'고 해서 적송(赤松), '주로 내륙지방에서 자란다'고 해서 육송(陸松)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이 소나무를 적송이나 육송으로 부르지는 않았고 옛 문헌에 나오는 소나무는 송(松) 아니면 송목(松木)으로 적었고 권 판자는 송관, 소나무 중에서 특히 재질이 좋은 나무는 황장목(黃腸木)이라 하였다고 합니다.

9/19	신청인 : (서명)
------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단풍나무</p>  <p>삼성궁의 붉게 물든 단풍</p>	<p>삼성궁의 단풍나무가 많은 이유는?</p> <p>10월이 오면 배달성전 삼성궁의 유난히 붉게 물든 단풍나무로 그 색을 더 합니다. 삼성궁에 단풍나무가 유난히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p> <p>삼성궁의 단풍나무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나무로, 고대 배달국시대에 치우천왕이 중원으로 들어가 우림곡에서 화산족 황제 환원과 대전을 벌일 때, 치우의 동생 치우시가 현원에게 붙잡혀 청을 거절하며 절개를 지키다가 죽어 단풍나무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에서 비롯되어 있습니다.</p> <p>가을이 되면 붉기를 비할 데 없는 모습에 충절을 지키며 목숨을 바쳤던 치우시의 모습이 그려지시나요?</p> <p>그렇다면 치우시는 누구일까요?</p> <p>그 궁금증에 대한 답은 잠시 후 마고성 으로 가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p> <p>궁금증을 가득 안고 다시 출발 하겠습니다.</p>

10/19	신청인 :	(서명)
-------	-------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	--

해설주제 주변경관	세부 시나리오
--------------	---------

 단풍나무	<p><i>Acer palmatum</i></p> <p>■ 무환자나무목 단풍나무과의 낙엽활엽 교목. 산지의 계곡에서 자란다. 높이는 10m에 달하고, 작은 가지는 털이 없으며 붉은빛을 띤 갈색이다. 잎은 마주나고 손바닥 모양으로 5~7개로 깊게 갈라진다. 갈라진 조각은 넓은 바소 모양이고 끝이 뾰족하며 가장자리에 겹톱니가 있고 길이가 5~6cm이다. 잎자루는 붉은 색을 띠고 길이가 3~5cm이다.</p> <p>꽃은 수꽃과 양성화가 한 그루에 핀다. 5월에 검붉은 빛으로 피고 가지 끝에 산방꽃차례를 이루며 달린다. 꽃받침조각은 5개로 부드러운 털이 있고, 꽃잎도 5개이다. 수술은 8개이다. 열매는 시과이고 길이가 1cm이며 털이 없고 9~10월에 익으며 날개는 긴 타원 모양이다.</p> <p>관상용으로 심으며 떨감으로 쓰인다. 한방에서 뿌리 껍질과 가지를 계조축(鷄爪)이라는 약재로 쓰는데, 무릎관절염으로 통증이 심할 때, 물에 넣고 달여서 복용하고, 골절상을 입었을 때 오가피를 배합해서 사용하며, 소염 작용과 해독 효과가 있다. 한국(제주·전남·전북)·일본에 분포한다.</p> <p>■ 내장단풍 잎이 7~9개로 갈라지고 뒷면 잎맥 위에 갈색 털이 있으며 열매의 날개가 수평으로 벌어지는 것(var. <i>nakaii</i>)</p> <p>■ 털단풍 잎이 7~9개로 갈라지고 잎자루와 잎 뒷면의 주맥에 흰색 털이 뽕뽕이 나며 열매의 날개가 달걀을 거꾸로 세운 모양인 것(var. <i>pilosum</i>)</p> <p>■ 아기단풍 잎 표면에는 털이 있으나 뒷면에는 없고 길이가 32~65mm이며 열매의 크기가 좁은단풍의 1/2인 것 (<i>A.micro-sieboldianum</i>)</p> <p>■ 세열단풍 원예종으로 일본에서 개발됐으며, 잎이 7~11개로 갈라지고 갈라진 조각이 다시 갈라지며 잎 가장자리에 톱니가 없는 것(var. <i>dissectum</i>)</p>
--	---




11/19	신청인 :	(서명)
-------	-------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해설주제 주변경관	세부 시나리오 <i>Acer mono</i> Painted maple
  <p>고로쇠나무, 수액채취</p>	<p>■ 무환자나무목 단풍나무과</p> <p>■ 산척수, 개구리손나무, 고로쇠, 고로실나무, 수색수, 색목, 오각풍</p> <p>한국에서 자라는 단풍나무(당단풍, 적단풍, 복자기, 산겨릅나무 등) 중 가장 굵고 높게 자란다.</p> <p>고로쇠의 어원은 골리수(骨利水) 나무에서 비롯한다. 글자 그대로 뼈에 이로운 수액이 들어 있는 나무라는 뜻이며 다른 이름인 '산척수'는 산에서 자라는 단풍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개구리 손 나무는 잎의 모양에서 비롯한 것이다.</p> <p>한자인 楓(단풍나무 풍)은 나무열매가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는 모습을 연상케 하며 이는 프로펠러 모양의 열매가 달리는 것을 뜻한다. 단풍나무 종류라면 어느 나무나 갖고 있는 특색이기도 하다. 이 중 고로쇠나무의 열매에는 좁은 각도의 날개가 달려 있다.</p> <p>일반적으로 단풍 나무류 와는 달리 노란빛으로 단풍이 들며 종자는 건조에 약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떨어진 종자는 수분부족으로 발아가 어렵다. 목재는 붉은빛이 돌고 재질이 치밀하여 체육관과 볼링장의 나무 바닥이나 바이올린의 몸체 제작에 주로 사용된다. 추위에 잘 견디고 햇볕이 적은 곳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대기오염에 약해 도심에서는 쉽게 볼 수 없다.</p> <p>잎 뒤에 갈색의 털이 나 있는 털고로쇠, 열매에 달린 날개 각도가 거의 수평을 유지하는 왕고로쇠 등의 변종이 있다.</p> <p>고로쇠나무의 수액은 무색무미로 약간의 향기가 나는데 특히 칼슘, 마그네슘 등이 많이 들어 있어 위장병·폐병·신경통·관절염 환자들이 약수로 마시면 효과가 있다고 하며, 즙에는 당류(糖類) 성분도 들어 있다. 고로쇠나무의 수액 채취는 경칩을 전후한 약 1주일간이 가장 좋다고 한다(양력 2/20~3/15). 그러나 이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날마다 수액이 흐르는 것은 아니고 기후조건에 따라 다른데, 그 이유는 줄기 안의 압력변화에 의해 수액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p> <p>즉 밤의 기온이 내려가면 갈수록 줄기 안에는 그 만큼 더 많은 수액이 생기게 되고 낮기온이 올라가면 갈수록 그 만큼 더 많은 양의 수액을 짜낼 수 있다. 수액을 다 채취한 다음 생긴 상처는 자가유합을 한다.</p>
12/19	신청인 : (서행)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일 천 소도(蘇塗)를 깨우는 징소리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입구</p>	<p>일 천 소도를 깨우는 징을 울려라</p>
   <p>삼성궁 입구</p>	<p>자 조릿대 숲을 지나 탁 트인 하늘이 보이는 삼성궁 입구에 왔습니다.</p> <p>여러분 여기서 잠시 오른쪽을 보시면 두 그루의 소나무가 있습니다. 이 소나무들은 지리산 청학동의 우애 있기로 소문난 형제가 변한 나무입니다.</p> <p>자~ 어떤 나무가 형이고 어떤 나무가 아우일까요?</p> <p>형 나무를 찾는 분은 이미 지리산의 정기를 받으신 분입니다.</p> <p>정답을 말하시는 분이 오늘의 제일 큰 임무인 '일천 소도를 깨우는 징'을 울리도록 하겠습니다.</p> <p>네~빨간 보자를 쓰고 계신 분이 손을 높이 드셨는데요.</p> <p>정답은?</p> <p>아래에 있는 나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p> <p>네~ 맞습니다.</p> <p>아우 나무는 위에서 형에게 기대고 있고 형 나무는 아래에서 동생나무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p> <p>자~ 그럼 정답을 말 한 분이 앞장을 서서 징을 치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 고조선의 소도를 복원한 삼성궁으로 들어가겠습니다.</p> <p>징~~징~~징~~</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일 천 소도(蘇塗)를 깨우는 징소리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둘러보기	삼성궁의 너른 마당
	삼성궁의 입구에는 옛날 사람들이 사용하던 물건들이 전시된 전시관이 있고 너른 마당에는 다듬이 돌이 운치 있게 여러분들의 걸음, 걸음을 이끌고 있습니다.
전시관	바닥에 놓여 있는 돌들의 곡선으로 이끄는 이어짐이 참 아름답죠? 바닥에 있는 돌들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다듬이 돌입니다. 다듬이라는 말만 들어도 다닥 따닥 다닥 따닥~~ 도닥 또닥 도닥 또닥~~ 두개의 방망이로 무명천 위에서 환상의 화음을 내는 여인의 모습이 그려지는 듯 합니다. 여러분은 다듬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경상도에 전해오는 다듬이질 노래를 들려 드릴게요.
	다듬이질 노래
	또닥또닥 다듬이소리 그 다듬이 듣고 나나 요네 귀가 짱짱하네 또닥또닥 다듬이소리 골골마다 울려 퍼져 우리 님 간장 다 녹이네
	■ 다듬이 방망이는 박달나무처럼 단단한 나무로 만들었고 다듬이 돌은 화강암으로 되어 네 개의 발받침과 윗면은 완만한 곡선으로 '한국의 미'를 매끈하게 이루며 아담하게 연마되고 무게가 제법 나가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좀이 잘 슬지 않으나 때로는 좀이 슬기도 하는데, 똑똑한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평상시 건강하던 사람이 아플 때 이를 두고 "박달나무도 좀이 슬다"는 옛 말이 있습니다

14/19	신청인 :	(서명)
-------	-------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일 천 소도(蘇塗)를 깨우는 징소리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건국전	어머니의 산. 지리산에서 시간이 시작 되었답니다.
	이 곳은 삼성궁의 주요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건국전입니다. 이 건물 안에는 삼성궁 설립의 의지를 알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시조인 한배임 (한인), 한배웅 (한웅), 한배검(단군) 및 역대 나라를 세운 태조, 각 성씨의 시조, 현인과 무장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시작인 그 어느 순간을 가슴으로 그려보고 호흡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이제는 아래 보이는 연못을 보세요. 우리나라의 태극 모양이죠?
	저기에 있는 연못은 고조선 시대의 한반도 모양의 연못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의 시작했던 그 때부터 이 모든 아름다운 자연을 지리산이 감싸고 있었기에 현재까지 우리가 이어질 수 있었던 건 아닌가 다시 한번 자연의 경이로움에 역사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위대한 힘을 느낍니다.
건국전	여러분 단군 신화하면 떠오르는 주인공이 있는데... 네, 곰과 호랑이죠? ■여기서 다시 한 번 귀에 쫄쫄 들어오고 가슴에 팍팍 와 닿는 재미있는 단군 신화를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군신화~곰이 21일 만에 여인이 되기까지.. 이렇게 우리 민족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위대한 웅녀... 그가 다시 지리산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네~ 시대가 흘러 웅녀의 가슴에 희도록 눈이 부신 아름다운 반달옷을 입고 있죠? 지리산, 어머니의 산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반달가슴곰입니다. ■ 반달가슴곰 이야기... 몇 마리가 살고, 왜 지리산에 방사했고, 생활사는 어떻게 되며, 어떻게 생겼으며, 어디쯤 살고 있고, 무얼 좋아하며, 반달가슴곰이 살고 있는 지리산은 어머니의 산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태극 연못, 한반도 연못	

15/19	신청인 :	(서명)
-------	-------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일 천 소도(蘇塗)를 깨우는 징소리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솟대     돌계단, 솟대	<p>우리 소원도 들어 줄까요?</p> <p>여러분 참으로 넓고 고요하며 자연스러운 이곳에서 사색에 잠기고 명상에 잠겨 있는 모습을 그려보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곳에 잠시 앉아서 눈을 감고 마음으로 마당에 쌓여 있는 돌 위에 소원 돌을 하나 더 올려 봅시다.</p> <p>삼성궁내에 있는 수많은 돌탑은 이 곳에서 생활하는 수행자들의 수행방법으로 돌을 쌓아 하늘과 소통하는 마음을 담아 올린 돌탑도 이곳에서는 솟대라고 부릅니다.</p> <p>여러분도 마음속에 소원 돌을 쌓으셨나요?</p>

16/19	신청인 : (서명)
-------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일 천 소도(蘇塗)를 깨우는 징소리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체험	마고성 가는 길
 <p>마고성</p>    	<p>이제는 삼성궁의 또 다른 신비한 곳 마고성으로 가겠습니다. 마고성은 인류의 시조와 역대 지리산의 산신을 모신 곳이며 마고 할머니의 전설이 현존하고 있는 곳으로 청동기 시대 민족양식을 엿 볼 수 있는 곳입니다.</p> <p>이 길을 가는 길에 있는 돌에는 여러 가지 얼굴 형상의 조각상을 볼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많이 봤던 얼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돌들을 자세히 살펴볼까요?</p> <p>아까 단풍나무를 설명하며 궁금증을 쌓았던 치우시와 치우천왕. 많은 들은 듯한 이름에 많이 본 듯한 얼굴을 찾아볼까요?</p> <p>치우천왕 이야기, 단풍 이야기, 박달나무 이야기..</p> <p>21일 만에 아름다운 여인이 된 곰, 곰과 환인 사이에서 태어난 단군 시조 이야기.. 그 옛날 야기를 다시 한 번 정리하여 볼까요?</p> <p>그리하여 치우시의 충절을 자랑이라도 하듯 단풍나무는 온통붉은 빛을 토해내는 삼성궁은 10월 중순부터 말까지 보름정도에 걸쳐 청학단풍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천제날을 받아 소도제천으로 불리는 개천 대제를 올리는 행사가 멋지게 펼쳐진답니다..</p> <p>(참고 자료 인용)</p>



17/19	신청인 :	(서명)
-------	-------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일 천 소도(蘇塗)를 깨우는 징소리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	---------




체험	민속놀이, 탁본뜨기
----	------------

 투호놀이	<p>삼성궁은 가을이 되면 열린 하늘 큰 곳이라는 잔치를 합니다. 마을 주민들 직접 사물놀이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민속놀이를 통해 전통 민족의식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투호놀이, 북치기, 전통무예시범, 1대부터 45대 단군의 이름도 볼 수 있는데요.</p> <p>■ 오늘 우리는 전통놀이인 투호놀이와, 치우천왕 탁본 뜨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p> <p>오늘 저와 함께 둘러 본 삼성궁 시간 여행 즐거웠나요?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이 곳 어머니의 산 지리산이 안고 있는 청학동 삼성궁내에서 말끔히 씻으셨나요? 자연의 엔돌핀과 시간의 타임머신이 여러분 가슴에 살아 움직이길 바라며 오늘 삼성궁 탐방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p>
 가면놀이	
 북치기	
 개천대제	

18/19	신청인 : (서명)
-------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일 천 소도(蘇塗)를 깨우는 징소리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서당체험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따로 이어지는 프로중에 혹시나 해서...)
   <p>다음 탐방지는 청학동 서당입니다. 청학동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하늘 천 따지~” 지금도 지리산을 울리는 훈장님의 호령소리를 따라서 서당으로 가겠습니다. 서당에서는 전통 차를 마시며 호호백발 훈장님이 들려주시는 차 마시는 예절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p> <p>훈장님께 배우는 예절공부</p>	

19/19	신청인 : (서명)
-------	------------